

한 절터에서 시작하는 백제

유물의 기록 → 발견된 공간 → 지금의 관람 정보

돌에 남은 글씨에서 시작해 절터의 건물 관계를 읽고, 소장과 전시의 차이를 확인합니다. 백제 읽을거리 가운데 한 절터를 함께 다루는 세 편을 묶었습니다.

세 편을 읽는 순서

01 유물 읽기 · 약 4분

같은 절터, 다른 방식으로 남은 백제

사리감의 글씨와 금동대향로의 형상을 통해, 능산리사지에서 나온 두 유물의 서로 다른 단서를 읽습니다.

02 장소 읽기 · 약 4분

능산리사지, 건물의 관계로 절터를 읽다

능산리사지는 왕릉과 도성의 경계 사이에 놓인 절터입니다. 목탑·금당·공방의 관계와 사리감 기록을 통해, 한 유물 너머의 공간을 읽어 봅니다.

03 방문 전 안내 · 약 3분

유물의 소장과 현재 전시는 다릅니다

소장품 페이지의 전시실 표기만으로 관람을 결정하지 마세요. 유물 전시 여부와 공간별 휴관·발권 조건을 구분합니다.

3편 · 관찰 질문 9개 · 기록지 1쪽

사진과 상세 해설은 원문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세 글은 읽는 순서로 묶었습니다. 방문을 계획할 때에는 각 장소의 관람 안내를 확인하세요.

2026-09-09 인쇄본. 이 파일은 자동으로 갱신되지 않습니다. 운영 안내는 각 글의 자료 확인일 기준이며, 방문 전 공식 공지를 확인하세요.

01 / 유물 읽기 · 약 4분

같은 절터, 다른 방식으로 남은 백제

사리감의 글씨와 금동대향로의 형상을 통해, 능산리사지에서 나온 두 유물의 서로 다른 단서를 읽습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09-09 · 단락 끝 번호는 뒤의 원문 목록과 연결됩니다.

먼저, 작은 돌방의 모양

사리감의 첫인상은 단순합니다. 위쪽 모서리를 둥글게 다듬은 화강암에 작은 방처럼 생긴 공간이 있습니다. 국립부여박물관의 해설은 이 공간의 입구에도 둥근 윗선과 테두리의 턱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바깥 윤곽과 안쪽 입구를 번갈아 보면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선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글에서 제안하는 첫 관찰은 글자를 읽기 전에 그 두 윤곽을 따라가는 일입니다.

무엇을 담기 위한 공간인지 알고 보면 빈 곳도 유물의 일부로 읽힙니다. 발견 당시 사리공 안에서는 유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이는 빈 공간을 근거로 원래부터 아무것도 담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남아 있는 모양과 처음의 내용물에 관한 질문은 서로 다릅니다. [1]

글씨가 알려주는 사람과 시간

감실 앞면 좌우에는 백제 창왕 13년, 곧 567년에 왕의 누이인 공주가 사리를 공양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돌의 재료와 형태만으로는 알기 어려운 사람과 시점을 명문이 덧붙입니다. 이 사리감은 능산리사지 목탑의 심초석 위에서 발견되었습니다. 글과 발견 위치를 함께 읽을 때 작은 물건이 건축과 왕실의 활동으로 이어집니다.

사진에서는 글의 위치를 먼저 찾고, 해설에서는 날짜와 인물을 따로 적어보세요. 글씨 자체를 모두 판독하지 못해도 기록이 어디에 놓였는지 살펴보는 관찰은 가능합니다. 형태에서 시작한 시선이 문자로 옮겨 가면, 유물은 단지 오래된 돌이 아니라 특정한 행위를 남긴 기록으로 다가옵니다. [1]

향로에서는 형상을 따라 읽기

같은 절터에서 나온 금동대향로의 공식 사진을 열어보면 시선의 움직임이 달라집니다. 꼭대기의 봉황과 산 모양 뚜껑, 그 사이의 악사와 여러 동물이 눈길을 붙잡습니다. 박물관 해설은 산 사이에 향의 연기가 나오는 구멍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보는 물건인 동시에 작동하는 도구였다는 단서입니다.

처음부터 작은 형상을 모두 세려고 하기보다 꼭대기에서 아래로 내려오며 윤곽을 보고, 다음에는 한 부분만 골라 살펴보세요. 사진을 크게 보았을 때 새로 발견한 것과 멀리서 보았을 때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원문 링크에는 사리감과 대향로의 공식 소장품 사진이 각각 연결되어 있습니다. [2]

같은 출토지가 같은 제작 이력은 아니다

두 유물의 공통점은 능산리사지라는 발견 장소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만으로 두 물건이 같은 날 만들어졌거나, 같은 공간에 놓였거나, 같은 의식에 쓰였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함께 읽기는 차이를 지우는 일이 아닙니다. 출토지라는 공통 항목 아래 재질, 남아 있는 문자, 표현된 형상을 따로 놓아보면 비교의 기준이 또렷해 집니다.

사리감의 글은 사람과 날짜를 읽는 실마리이고, 향로의 형상은 무엇을 어떻게 표현했는지 묻게 합니다. '백제의 아름다움'이라는 하나의 인상으로 묶기 전에 각 물건이 어떤 종류의 질문에 답하는지 살펴보세요. 같은 장소에서 출발해도 읽기의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2]

두 개의 메모로 다시 보기

두 공식 사진을 번갈아 본 뒤 메모를 두 칸으로 나누어보세요. 첫 칸에는 해설에서 확인한 날짜·출토지·재료를, 다른 칸에는 내가 찾아낸 윤곽과 더 궁금한 점을 적습니다. 예를 들어 '글씨가 입구 양옆에 있다'는 관찰에서 '왜 이 위치를 택했을까'라는 질문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질문에 곧바로 답을 만들어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사진을 닫고 각 유물에서 기억나는 부분을 한 가지씩 떠올려보세요. 다음에 다시 볼 부분이 정해졌다면 이미 첫 감상이 한 단계 구체적이 된 셈입니다. 컬처스텝의 독서 순서는 이 작은 비교에서 시작해, 유물이 발견된 절터와 지금의 소장기관을 구분하는 읽기로 이어집니다. [1] [2]

함께 생각해 보기

1. 사리감에서 감실과 명문의 위치를 찾아보세요.
2. 대향로 공식 사진에서 봉황과 악사를 찾아보세요.
3. 공통 출토지와 서로 다른 재질·표현 방식을 구분해보세요.

02 / 장소 읽기 · 약 4분

능산리사지, 건물의 관계로 절터를 읽다

능산리사지는 왕릉과 도성의 경계 사이에 놓인 절터입니다. 목탑·금당·공방의 관계와 사리감 기록을 통해, 한 유물 너머의 공간을 읽어 봅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09-08 · 단락 끝 번호는 뒤의 원문 목록과 연결됩니다.

왕릉과 도성 사이

부여군은 능산리사지를 '능사'라고도 부르며, 나성과 부여 왕릉원 사이 골짜기에 있는 절터로 소개합니다. 나성은 사비 도성의 외곽을 두른 성벽입니다. 군의 해설은 절터 곁의 왕릉들이 사찰의 성격을 이해하는 근거가 된다고 설명합니다. 절터의 위치를 읽을 때는 건물 하나만 보는 대신, 무덤이 모인 곳과 도성의 경계 사이에 놓였다는 관계부터 살펴볼 수 있습니다. [3]

목탑만 있었던 절이 아니다

박물관 해설에 따르면 이 절에는 목탑과 금당을 중심으로 중문·강당·회랑·공방 등 여러 건물이 있었습니다. 이름이 다른 건물들이 한 절을 이루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다만 건물 목록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사람들의 하루나 모든 이동 순서를 복원할 수는 없습니다. 배치 자료를 읽을 때에는 확인된 건물과 상상으로 채운 활동을 나누어 적는 편이 좋습니다. [1]

돌에 남은 날짜가 알려주는 범위

목탑 중심부에서는 석조사리감이 발견됐습니다. 명문에는 창왕 13년, 곧 567년에 왕의 누이인 공주가 사리를 공양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박물관은 이때 목탑 중심기둥을 세우기 위한 작업과 사리감 매납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 날짜는 사리 공양과 관련된 중요한 기준이며, 절터의 모든 건물이 같은 해 완성됐다는 기록은 아닙니다. [1] [3]

읽기 제안: 관계와 단정을 구분하기

박물관은 위치와 명문을 근거로 왕실의 기원을 비는 절, 특히 성왕을 추모하고 왕릉을 관리하던 절이었을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여기서 '가능성'은 빠뜨리지 말아야 할 말입니다. 공식 해설을 읽으며 출토 위치와 명문 내용에는 밑줄을, 절의 성격에 관한 해석에는 동그라미를 쳐 보세요. 서로 다른 근거가 하나의 설명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비교하는 읽기 방법입니다. [1]

함께 생각해 보기

1. 절터·왕릉원·나성은 공식 설명에서 어떤 위치 관계로 연결되나요?
2. 567년이라는 날짜가 직접 알려주는 사건과 알려주지 않는 사건은 무엇인가요?
3. 왕실 사찰이라는 해석은 어떤 위치 정보와 문자 기록을 근거로 삼나요?

03 / 방문 전 안내 · 약 3분

유물의 소장과 현재 전시는 다릅니다

소장품 페이지의 전시실 표기만으로 관람을 결정하지 마세요. 유물 전시 여부와 공간별 휴관·발권 조건을 구분합니다.

공식 자료 확인 2026-09-08 · 단락 끝 번호는 뒤의 원문 목록과 연결됩니다.

소장품 정보와 오늘의 전시를 구분하세요

국립부여박물관의 사리감 소장품 페이지에는 전시실 정보가 있습니다. 하지만 소장 정보와 현재 전시 여부는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이번 공개자료 확인만으로 사리감 실물을 지금 관람할 수 있는지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1]

휴관하는 공간과 발권 장소를 확인하세요

상설전시실 휴관 안내 기간은 2026년 7월 28일부터 12월 14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백제대향로관·어린이박물관은 사비마루 공연장에서 당일 QR 무료입장권을 발권하도록 안내합니다. 회차와 최신 공지를 출발 전에 확인하세요. [4] [5]

출토지 방문은 별도로 계획하세요

능산리사지는 사리감이 발견된 절터로 소장기관인 국립부여박물관과는 다른 장소입니다. 유물 실물을 보는 일과 출토지를 찾는 일을 구분하세요. 절터 자체의 운영시간·요금·예약 조건은 확인하지 못했으며 인근 왕릉원 안내를 그대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1] [3]

함께 생각해 보기

1. 보고 싶은 유물의 현재 전시 여부를 공식 안내에서 확인했나요?
2. 방문일의 전시관별 휴관과 발권 방식·회차를 확인했나요?
3. 박물관과 절터를 구분하고 절터 자체의 운영 조건을 확인했나요?

위 임시 운영 안내의 적용 기간은 2026-12-14까지입니다. 방문 날짜가 정해지면 공식 공지에서 운영시간·발권·전시 정보를 다시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와 원문

단락 끝 번호에 해당하는 원문입니다. 링크에서 사진과 상세 해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진과 자료의 이용조건은 각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1] 국립부여박물관 - 능산리사지석조사리감

<https://buyeo.museum.go.kr/rprsPsn/view.do?key=2302150017&rprsPsnCmdtyMngSn=2001010002>

[2] 국립부여박물관 - 백제금동대향로

<https://buyeo.museum.go.kr/rprsPsn/view.do?key=2302150017&rprsPsnCmdtyMngSn=2001010001>

[3] 부여군 - 절터로 떠나는 여행, 능산리사지

https://edu.buyeo.go.kr/html/tour/info/info_010203.html

[4] 상설전시실 휴관 공지

<https://buyeo.museum.go.kr/bbs/view.do?key=2301250005&pstSn=2607010001>

[5] 운영 전시관·발권 안내

<https://buyeo.museum.go.kr/bbs/view.do?key=2301250005&pstSn=2607100002>

편집·이용 안내

글·질문 편집: 컬처스텝. 자료 확인일은 각 글에 표시했습니다. 소장 정보와 현재 전시는 다를 수 있으므로, 관람을 계획할 때에는 박물관의 최신 안내를 확인하세요.

제목 글꼴: 제주명조체 · 제주특별자치도. Google Fonts의 SIL OFL 1.1 배포본을 문서에 포함했습니다. 본문 글꼴은 맑은 고딕입니다.

[제주명조 실제 배포본 라이선스](#)

웹판 읽을거리: culturestep.kr/guides

읽은 뒤에 남기는 기록

자료에서 확인한 내용과 나의 감상을 나누어 적어보세요. 이 기록지는 본인이 보관하는 개인 기록이며 사이트와 연동되지 않습니다.

01 / 두 유물 비교

사리감과 대향로에서 각각 무엇을 읽었나요? 공식 원문에서 확인한 내용과 나의 감상을 구분해 적어보세요.

02 / 공간 구분

박물관과 절터는 어떤 관계인가요? 건물의 배치에서 더 찾아보고 싶은 질문 한 가지를 적어보세요.

03 / 방문 전 재확인

방문을 계획한다면 무엇을 다시 확인해야 할까요? 확인한 기관·공식 공지 주소·확인일을 적어보세요.

기록일: _____ 더 읽고 싶은 주제: _____